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국가보훈처	보 도 자 료		든든한 보훈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2쪽
배포 일시	2021. 11. 24.(수)	담당 부서	보훈처 보훈의료과 보훈공단 의료관리부
담당 과장	조미란(044-202-5640) 양치헌(033-749-3765)	담당자	김민화(044-202-5644) 윤영민(033-749-3766)

중앙보훈병원 집단확진과 관련해 코로나19 고강도 재발 방지대책 수립하고 입원 재개한다

□ 국가보훈처(처장 황기철, 이하 '보훈처')는 **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**(이하 '보훈공단') **이사장 주재로 24일(수) 오전에 중앙보훈병원 코로나19 집단 확진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방역체계 재설계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보훈병원장 전체 화상회의를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화상회의는 지난 **19일 황기철 보훈처장이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 시 방역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**된 것이다.

□ 중앙보훈병원은 11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보훈처, 보훈공단과 함께 '비상대책 특별팀'을 구성했고, **방역당국과 함께 병동 격리, 입원 중단, 전 직원 전수검사 등을 시행했고, 24일 0시 기준으로 원내 확진자는 누적 167명**이다.

○ 중앙보훈병원은 **원내 상시체류자 2천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2차례에 걸쳐 진행**했고, 23일 추가 확진자는 7명인 만큼 **향후 2차 확대 감염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**했다.

○ 이에 따라 중앙보훈병원은 방역당국·서울시 합동상황반의 의견을 종합하여 **24일 외과계 병동부터 순차적으로 입원을 재개하기로 결정**했다.

○ 또한 황기철 보훈처장 지시사항에 따라 **전국 보훈병원에서 이와 같은 집단 감염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체계 강화방안을 마련**했다.

- 여기에는 ▲ 입원환자는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고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**입원 전과 입원 4일째 유전자 증폭(PCR) 검사** 시행 ▲ **보호자와 간병인은 주 1회 유전자 증폭(PCR) 검사** 실시 ▲ 상시 체류하는 직원과 관계자는 **전수조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주 1회 유전자 증폭(PCR) 검사 결과 확인 의무화와 백신 추가 접종을 조기 진행**하는 내용이 포함됐다.

□ 보훈처는 보훈병원, 재활센터 및 보훈요양원 등에서 **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, 국가유공자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 아낌없는 지원**을 할 예정이다.

○ 한편, 감신 보훈공단 이사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보훈병원장들에게 “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책임지는 **보훈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으로 국가유공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감**을 느낀다” 라며, **“철저한 재발 방지와 충실한 국가유공자 진료 수행으로 보훈대상자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훈병원이 되도록 노력**하겠다” 라고 전했다. 〈끝〉